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경 심

2014년 8월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고 경 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고경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성봉



위

원

양진건



위

원

최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

고 경 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요즘 청소년들은 개방된 성문화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잡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질서한 정보에 접하게 됨으로 인해 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회의 위험요소로만 보는 어른들의 그릇된 시각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털어놓고 의논을 할 수 없어 청소년의 성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과 성병 경험율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청소년의 성문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성문제의 접근에 있어 대부분 순결교육에 치중하는 성교육의 방향에 문제점이 있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꺼리고 등한시하고 있는 피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시내 소재한 13개 고등학교 중 10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745부를 수합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한 727부의 자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료를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와 분석 결과,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와 피임 지식에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임 태도와 피임 지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피임 지식이 부분 매개로 나왔다. 이를 통해 피임 태도를 높이는 데는 피임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향성이나 체질량 지수와 같은 가외 변인 등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대상자가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중매체의 역할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성 관련 문제의 시작과 해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심리적 측면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상담 시 심리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야 피임 지식과 피임 교육을 질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의 수행과,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개입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앞으로 살펴보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피임 태도를 정립하고 정확하게 피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임 교육의 목적이며 성 교육의 방향이라면, 심리적인 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프로그램 전체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5
3. 용어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피임 자기 효능감	8
2. 피임 태도	9
3. 피임 지식	11
4.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2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도구	15
3. 연구절차	17
4. 자료처리 및 분석	18
IV. 연구결과 및 해석	19
1.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9
2.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임 지식의 매개효과	20
3.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24
V. 논의 및 결론	26

참고문헌	32
Abstract	38
부 록	41

표 목 차

표 III-1. 대상자 인구학 통계적 배경	15
표 IV-1.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의 상관관계	19
표 IV-2.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지식에 미치는 영향	21
표 IV-3.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	22
표 IV-4.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	23
표 IV-5. Sobel Test 검증값	25

그림 목 차

그림 IV-1.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피임 지식 의 매개효과	24
--	----

부 록 목 차

부록 I. 설문지	40
부록 II. 성관련 실태	45
부록 III. 측정변수에 차이 분석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요즘 청소년들은 개방된 성문화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잡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질서한 정보에 접하게 됨으로 인해 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시기이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자신들의 성장기에 각인된 보수적인 관점에 머물러 청소년의 성을 사회의 위험요소로만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부모와 쉽게 털어놓고 의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의 성문제는 나날이 늘어나도록 조장되고 감춰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960대 성 의식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대중매체나 문학, 예술 분야 등을 통한 성적 자극이 과도하게 범람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성적 쾌락과 성욕 충족의 권리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만연하였다. 그와 같은 흐름 속에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피임 행위와 강하게 연결되면서, 성에 있어서 남성들은 더 공격적인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믿음이 정당화되었다(윤가현, 2013). 고등학생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자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경험이 더 많은데도 피임 지식은 여학생보다 높지 않다(조미옥, 김증임, 2004; 조주연, 이인숙, 2010). 이는 성 행위의 결과를 남자 고등학생 쪽에서 책임지기보다는 여자 고등학생에게 떠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로 인해 여학생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와 성병 감염 등의 고리로 이어지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이인숙, 조주연, 2008). 또한 임신은 여성의 몫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여학생들은 더욱 더 심리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가게 되는 것이다(강희선, 2009).

우리 사회는 출산율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 경험 연령은 점

차 낮아지고, 10대 미혼모와 낙태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줄일 수 있는 피임 실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2012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보면 성관계 경험율은 고1 2.8%, 고2 6.6% 고3 9.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고, 성관계 시작 연령도 차츰 낮아지며,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과 성병 경험율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황신우, 정재원, 2011).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2001)의 연구에서는 성 경험율 4.5%, 낙태 경험율 0.5%이었고, 강영삼, 이기중, 조원호, 김한분, 이종섭, 정현숙(1997)의 연구와 이한주, 강희선(201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관계의 경험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성 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의 24.1%가 임신을 하였으며(인재근, 2013), 임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낙태율은 61.6%였다(KOSIS 100대 지표, 2014). 2013년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2년 484,550명에 비해 2013년에는 436,600명으로 47,950명이 감소한 데에 비례해서(KOSIS 100대 지표, 2014) 청소년의 임신율과 낙태율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 흡연율, 낙태율이 세계 1위이다(dcinside, 2014). 2013년 9월 26일 세계 피임의 날을 맞이하여, 한 제약회사가 유럽과 아시아의 1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피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청소년 200명 가운데 70%가 피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15개 나라 중 피임 상식이 가장 뒤떨어졌다(SBS, 2014). 이와 같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피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방법을 본 연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피임 태도는 자신이 피임 사용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까지도 포괄하며, 임신 예방을 위해 어떤 피임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행동의 지침이기도 하다(Ajzen & Fishben, 1980). 피임 태도는 피임의 효과와 신뢰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대처하는 상호 작용까지도 포함한다. 심지어 대상자가 피임 도구를 구입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때 그가 피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피임을 지속하려고 할 것이며, 그와 달리 부정적인 경우라면 지속적인 피임 실천이 어려워 질 것이다(정운지,

2008; 조주연, 한승의, 송미승, 2006).

따라서 청소년의 피임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피임 자기 효능감, 성 교육,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피임 자기 효능감은 피임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조미옥, 김증임, 2004; 조주연, 이인숙, 2010; 황신우, 200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의식과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성 의식 정도가 높을수록 성 관련 경험이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개인의 의식 변화가 피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은정, 2011). 이런 의식의 변화는 내면적인 신념의 변화를 요구한다.

피임 자기 효능감이란 성 관계를 할 때, 자신이 피임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피임 실천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피임 자기 효능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겠다는 확신의 정도이고(김명희, 1997),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며(강희선, 2001; 조주연, 한승의, 송미승, 2006), 성 관계 상황에서 피임할 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고(김미중, 2001), 피임할 것에 대해 성 상대자와 얘기하는(박지현, 김태현, 2005) 등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 효능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피임 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조주연, 이인숙, 2010).

피임 태도를 높이는 데 피임 자기 효능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임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적 신념인데, 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피임 자기 효능감을 지속해 나가고 피임 태도를 향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피임 지식이 높아지면 피임 태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연아, 오진아, 2011; 송미승, 조주연, 전미순, 함미영, 위휘, 2010; 이인숙, 조아영, 2012; 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황신우,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피임 지식의 정보 출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오인숙, 2012; 이금덕, 2009) 또는 인터넷(강수연, 2001; 김복자, 2003; 두

성균, 2008; 조미옥, 김중임, 2004; 조주연, 이인숙, 2010)이었는데,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피임 지식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하거나 그릇된 정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임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교 형태, 나이, 성 교육 유무 등이 있는데, 일반고 고등학생들이 특성화고 고등학생들보다, 성 교육이나 피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피임 지식이 높게 나왔다(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피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피임 지식 역시 성 교육과 피임 교육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에서,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의 피임 태도 개선에 대한 효과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상담 심리의 측면에서 매개 변인의 검증의 의미는 첫째, 매개 변인의 개입의 효과를 밝히는 데 있으며, 둘째, 상담 개입의 전략을 매개 변인에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 한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의 개입이 청소년의 피임 태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둘째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상담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피임은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상대방의 임신, 출산에 대한 문제도 조절할 수 있는 등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임에 대한 연구(김연아, 오진아, 2011; 신은정, 2011; 이금덕, 2009; 이금덕, 방경숙, 2011; 이인숙, 조주연, 2008; 이한주, 강희선, 2011; 조주연, 이인숙, 2010;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성에 대해 많이 개방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임신, 피임 등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며, 더욱이 청소년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몇몇하게 받지 못하므로 미혼모와 낙태율이 증가하게 되는 또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또래 친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순결 교육에 치중하여 강조할 뿐, 올바른 피임의 실질적

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오인숙, 2012; 이금덕, 2009; 인재근, 2014). 더욱이 학교나 가정에서는 오히려 혼전 성 관계가 더 조장된다는 우려 등으로 피임 교육을 꺼려하고 등한시하기도 했다(김선정, 200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성교육은 피임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김혜원, 이종민, 2001; 조용주, 정남운, 2005).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생, 미혼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지식, 피임 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 2개의 변인을 연구한 논문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임 자기 효능감과 지식에 대한 연구(이인숙, 조주연, 2008; 조주연, 이인숙, 201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피임 태도와 피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황신우, 2009; 황신우, 201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김선정, 2003)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이인숙, 조아영, 2012; 최정현, 김정은, 신미아, 2010; 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김미중, 2000; 김미중, 2001; 김미중, 강희선, 2003) 등이다.

피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임 지식을 실제 성 관계 상황에서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피임 지식을 습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 관계 상황에서는 여전히 피임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피임 태도를 정립하고 스스로 피임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나날이 늘어가는 10대들의 성경험 증가, 임신, 낙태 그리고 미혼모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생의 피임 태도, 피임 자기 효능감 그리고 피임 지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의 관계에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가 있는가?

가설 :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의 관계에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용어 정의

가. 피임 자기 효능감

- 이론적 정의 : 개인 스스로가 피임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Ajzen, 1991).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강희선(2001)이 콘돔 사용 자기 효능감 관련 도구로 개발했던 것을 조주연, 이인숙(201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 관련 경험, 피임 도구 사용 주장, 피임준비, 피임 사용의 지속, 성적 자기 결정권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피임 태도

- 이론적 정의 : 피임 행위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을 의미한다(Ajzen & Fishben, 198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김선정(2003)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피임에 대한 태도, 인공 유산, 피임의 주제 등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피임 지식

- 이론적 정의 : 피임과 관련된 효과와 사용법 그리고 생식 기관의 해부와 생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Wang 등, 2003).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김미종(2001)이 제작하고 이인숙, 조아영(20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2인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생에 맞게 다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피임 지식에 대한 13개 문항으로, 정관 수술, 콘돔 사용법, 경구 피임약, 자궁 내 장치, 응급 피임법, 배란 시기 측정법, 점액 관찰법, 성병과 에이즈, 질외사정법, 살정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임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이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으로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며,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 의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력을 많이 하게하고, 어려움에 직면 시 이미 습득한 기능을 더 강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다. 이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에 관여하여 자기 발달을 도우며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인자이며, 부정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선택의 결정인자이다.

Bandura(1977)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인지가 건강한 생활 태도를 갖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없애도록 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결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연구들은 대부분 지각된 자기 효능감의 역할과 위험 인지와 과거 행동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콘돔 사용은 과거의 행동이 가장 강한 예언 요인으로 나왔다(윤운성 등 공역, 2009). 자기 효능감은 피임이나 HIV 감염을 포함한 성병 예방의 중요한 요인이며, 성적 상황에서 콘돔을 사용하고자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을 콘돔 사용 자기 효능감이라 한다(강희선, 2001).

Levinson(1986)이 자기 효능감을 피임 행위에 확장하여 사용하면서 피임 자기 효능감이란 개념이 시작되었다. Levinson(1986)의 연구에 의하면, 피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 상대자에게 피임을 요구하거나 피임 도구를 구입하여 사용할 능력이 있고, 성 관련 문제에 대해 대화를 잘 나눌 경우, 피임을 잘

실천하는 성공적인 피임 이용자가 된다고 한다.

피임 자기 효능감이란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이 피임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피임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콘돔 사용 자기 효능감(강희선, 2001), 성적 자기 주장(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 2001)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피임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은 10대 여성들의 피임 장애 요인들을 바로 잡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것은 성 상대자와 피임에 대해 얘기를 하거나 피임을 하는 것, 성 상대자나 부모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임을 하는 것 그리고 매우 흥분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성교의 경우에도 사전에 피임에 대해 얘기하거나 피임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피임 자기 효능감은 피임 행위의 예측 요인이다(Levinson, 1986).

피임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겠다는 확신의 정도이고(김명희, 1997),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며(강희선, 2001; 조주연, 한승의, 송미승, 2006), 성 관계 상황에서 피임할 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고(김미중, 2001), 피임하기를 성 상대자와 얘기하는(박지현, 김태현, 2005) 등의 행동을 하게하는, 선행 연구에서 안전한 성 행위 실천과 피임 실천에 대한 중요한 개념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김미중, 2001).

피임 자기 효능감에 대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보면 특성화고 여고생과 일반고 여고생은 약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이인숙, 조주연, 2008),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2학년과 3학년의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조주연, 이인숙, 201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황신우, 2009; 황신우, 정재원, 2011), 남녀 모두의 피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황신우, 2013; 황신우, 정재원, 2011).

2. 피임 태도

태도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내리는 평가를 말한다. 이런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피임 행위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평가로 피임 행위에 대한 예측 인자로 검증되었다(Ajzen & Fishben, 1980).

피임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으로 피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차이가 나며, 이 또한 부정과 긍정의 태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란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임 행위가 성관계 때 성감을 둔화시키며, 피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숙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태도란 피임 실천이 무분별한 성 관계에서부터 성 관련 질병을 예방함은 물론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은 물론 성 상대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강희선, 장순복, 2004). 즉 피임 태도는 개인이 피임 실천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 행동을 결정하는 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 행위를 더 잘할 것이다(김미중, 2001;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피임 실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피임 태도라 할 수 있다(임현자, 내산화미, 조유향, 2002; 장순복, 이미경, 2003; 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는 미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이며, 이것이 피임 실천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피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이는 피임의 몫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더불어 피임 실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여성이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피임 태도가 높게 나왔다(황신우,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피임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리 나타난다. 대학생들의 경우 연령별, 성별, 거주 유형에 따라 피임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21세 이상의 여학생 집단의 피임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전문대 간호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포옹 경험이 있거나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 그것이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피임 태도가 높게 나왔다(이인숙, 조아영, 2012). 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가 모두 높게 나왔다(황신우, 정재원, 2011). 선행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온 것을 피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과 자기 보호 행위 및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송미승, 조주연, 전미순, 함미영, 위휘, 2010).

3. 피임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행동에 대한 준비가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거나 추상적이고 비전문적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결정을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친구나 선배를 통한 추상적이고 부적절한 정보만 갖고 피임을 선택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피임 지식이란 생식기의 해부·생리 및 피임 도구의 사용과 피임의 효과 등에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Wang et al., 2003). 피임 지식은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성교로 인한 임신 또는 그 밖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피임 없이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지각하게 한다. 이런 지각 행위는 10대들의 임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피임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가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피임 실천율과 임신율이 낮다고 보고되었다(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Wang et al., 2003).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피임 지식이 높다고 하였다(조주연, 이인숙, 2010).

피임 지식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선미(2002)의 연구에서 보면, 15세 이하의 미혼모가 1999년 6.0%에서 2000년에는 8.7%로 증가하였고, 2005년 8월 전국 미혼모 시설 11개소에 입소한 238명의 미혼모 중에 10대가 33.2%이었다(정옥희, 2006). 2012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관계 경험율이 높고, 성 관계 시작 연령도 차츰 낮아지고 있으며,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과 성병 경험율도 매

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관계 경험이 증가하였고(이한주, 강희선, 2011), 성 경험은 남학생이 높지만, 피임 지식은 여학생이 높다(모현숙, 2006; 조주연, 이인숙, 2010).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시달리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 문화적인 건강까지도 손상을 줄 수 있다(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성교 경험이 있을수록 피임 지식이 높고, 성 교육만으로는 얻는 지식보다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더 늘어난다고 하였다(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이는 다양한 피임 방법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확실한 기전을 몰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성 관계 시에는 낙태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필요성을 느껴 사용하는 것이다.

피임 지식은 피임 교육의 유무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계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피임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 조주연, 2008; 조미옥, 김중임, 2004). 일반화계열 여고생들이 특성화계열 여고생보다 피임 지식이 높았으며, 또한 일반화계열 여고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 성적일수록 피임 지식이 높았다(이인숙, 조주연, 2008). 전문대 간호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 성적, 애무 경험 유무가 피임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인숙, 조아영, 2012).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 지식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들보다 높고, 21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20세 이하의 연령 집단보다 높았다(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이에 비해 피임 지식이 피임 행위에 미미한 정도의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김미중, 2000).

4.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태도, 피임지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피임 실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황신우(2013)의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의도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피임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즉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했다.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에 대해서는 미혼 남녀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황신우, 2009; 황신우, 2013; 황신우, 정재원, 2011). 피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고 임신 위험 지각이나 피임의 의도가 이 두 변인을 이어주는 변수이기도 하였다, 특히 피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기도 했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에 대해 연구된 것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지식의 두 변인에 대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다. 이인숙과 조주연(2008)이 일반고와 특성화고 여고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피임 지식은 일반고 여고생이 특성화고 여고생보다 높았으나, 피임 자기 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고 여고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이성 교제에 대해 개방적인 부모의 태도에 따라 높았고, 특성화고 여고생은 성적이 상위권이고, 이성 교제에 대해 부모가 개방적일 때와 학교에서 피임 교육을 받았을 때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지식의 상관관계를 보면 피임 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이인숙, 조주연, 2008). 또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 효능감이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 경험은 많지만 피임 지식은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피임 교육을 받은 경험 대상자는 피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피임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조주연, 이인숙, 2010).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혼 여성으로 다양했으며, 응급 피임약에 대해 미혼모와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김선정(2003)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와 토론을 통합한 피임 교육 프로그램 후에 측정하였는데 피임 지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태도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 태도를 유형별로 나누어 성 지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유형에 상관관계가 있었다(모현숙, 2006).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지식과 태도를 또 하나의 변인으로 두었는데,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 피임 지식과 인공 임신 중절 지식, 피임 지식과 인공 임신 중절 태도, 피임

태도와 인공 임신 중절의 지식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다(김연아, 오진아, 2011). 전문대 간호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만의 상관관계를 찾았다. 그 결과 피임 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이인숙, 조아영, 2012).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연구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두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정 상관관계로 나타났다(임현자, 내산화미, 조유향, 2002). 기혼 여성에 대해서는 김미중(2000, 2001)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란 가설을 세워 연구하였는데 피임에 대한 지식이 피임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지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이었고,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 행위로 가는 두 갈래의 통로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이경미, 2011).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에 소재하는 10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조사기간이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보고 난 후 학교 사정상 배제하였고 층화군집표집하여 745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7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 통계적 배경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대상자 인구학 통계적 배경

(N=727)

변인	문항구분	n(%)
성 별	남	400(55.0)
	여	327(45.0)
학 년	1학년	357(49.1)
	2학년	370(50.9)
계 열	일반고	326(44.8)
	특성화고	401(55.2)

2. 연구도구

가. 피임 자기 효능감 척도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피임 자기 효능감이란 성교 상황에서 피임 사용을 가능하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피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강희선(2001)이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도구로 개발했던 도구를 피임 관련 내용으로 이인숙, 조주연(2008)과 조주연, 이인숙(201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 내용은 성 관련 경험, 성의사 소통, 콘돔사용의 주장, 피임기구의 구입, 피임 준비, 성적 통제, 피임방법의 정확성, 피임법 이행, 피임사용의 지속성, 피임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전혀 자신없다, 5= 매우 자신있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주연, 이인숙(2010)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다.

나. 피임태도 척도

태도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내리는 평가를 말한다. 이런 태도는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면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피임행위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평가로 피임행위에 예측인자로 검증되었다(Ajzen & Fishben, 1980).

본 연구에서는 김선정(2003)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도구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를 묻는 10문항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문항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택·사용하였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면 성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 '성 감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의논하여 '콘돔을 하는 것은 불감증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용은 낙태와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의 주체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선정(2003)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75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65이다.

다. 피임지식 척도

피임지식이란 생식기관의 해부·생리 및 피임도구의 사용과 피임의 효과 등에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Wang et al., 2003). 피임지식의 측정은 김미중(2001)이 개발한 피임지식 측정도구 15개 문항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개 문항을 간호학과 교수 2인의 도움을 받아 삭제하여 수정·보완한 총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피임의 원리와 사용법 그리고 피임의 장·단점 등 피임에 관한 정보를 진술한 문항들로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주어 피임지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3점이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미중(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0$ 이었고(사전조사 .7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7$ 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시에 소재한 13개 고등학교 중 10개 학교를 1학년과 2학년, 남자와 여자,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나눈 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은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 그리고 피임지식에 대한 것으로, 직접 실시할 수 없는 9개 학교 675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자료를 각각 봉투에 넣고 배부 수합하였다.

- 1) 연구자가 해당학교의 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으면 해당학교 교사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합하여 봉투를 봉하도록 하였다.
- 2) 남녀공학인 일부 학교에서는 대상자들이 솔직하게 답하기 어렵거나, 대상자의 대답을 보고 다른 대상자가 놀릴 가능성이 있어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보건교사가 설문지 작성하는 동안 서로의 내용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하여 봉투를 봉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의 관계에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의 상관관계는 표 IV-1.와 같다.

표 IV-1.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의 상관관계

	1	2	3
1 피임 자기 효능감	1		
2 피임 태도	.33**	1	
3 피임 지식	.32**	.24**	1
평균	3.03	3.77	2.28
표준편차	.74	.58	2.53

** $p < .01$

표 IV-1.와 같이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의 평균은 각각 3.03, 3.77, 2.28로 나타났으며, 피임 지식의 경우 표준편차가 2.53으로 학생들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임 자기 효능감은 피임 태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r=.33, p<.01$), 피임 지식과도 정적 상관($r=.32, p<.01$)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임 태도는 피임 지식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4, p<.01$). 따라서 피임 자기 효능감을 높게 형성한 학생은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피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 피임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

청소년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더 작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 매개로 나누어지는데 완전매개는 (3)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 말한다(김경희, 2009).

가. 1단계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검증 절차 중 1단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피임 자기 효능감이 매개변인인 피임지식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지식에 미치는 영향

(N=727)

단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독립변수	종속변수				
		상수	-1.02	.38	-	-2.72
1단계	피임 자기 효능감	→ 피임 지식	1.09	.12	.32	9.03***
$R^2=.10$, $F=81.47$, $p=.000$						

*** $p < .001$

표 IV-2.과 같이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beta=.3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t=9.03$, $p<.001$),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지식의 관계를 10%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피임 지식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나. 2단계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검증 절차 중 1단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피임 자기 효능감이 종속변인인 피임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I-3.와 같다.

표 VI-3.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

(N=727)

단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독립변수	종속변수				
	상수		2.98	.09	-	34.94
2단계	피임 자기 효능감	→ 피임 태도	.26	.03	.33	9.53***
			$R^2=.11$, $F=90.90$, $p=.000$			

*** $p < .001$

표 VI-3.와 같이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beta=.3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t=9.53$, $p<.001$),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의 관계를 11%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피임 태도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절차 2단계가 만족되었다.

다. 3단계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절차 3단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피임 자기 효능감과 매개변인인 피임 지식이 동시에 종속변수인 피임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I-4.와 같다.

표 VI-4.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지식이 피임태도에 미치는 영향

(N=727)

단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독립변수	종속변수				
	상수		3.02	.09	-	35.58
3단계	피임 자기 효능감	→ 피임 태도	.22	.03	.29	7.81***
	피임 지식		.04	.01	.15	4.18***
$R^2=.13$, $F=55.24$, $p=.000$						

*** $p < .001$

표 VI-4.와 같이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지식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beta=.15$)와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beta=.1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t=7.81$, $t=4.18$, $p<.001$),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13%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에 따라 2단계와 3단계의 회귀계수와 설명력을 비교하면, 2단계 회귀계수($\beta=.33$)가 3단계 회귀계수($\beta=.29$)가 더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지식 모두 피임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임 지식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V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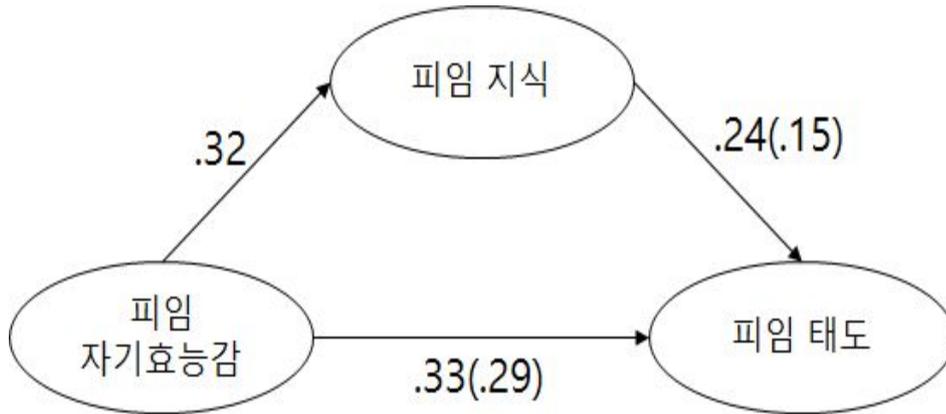


그림 VI-1. 피임 자기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

3.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임 지식이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Mackin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Z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 < .01$ 수준, 3.30이상일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안자영, 2009).

$$Z = \frac{ab}{\sqrt{b^2 \times SE_a^2 + a^2 \times SE_b^2}}$$

Z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매개변인인 피임 지식이 종속변인인 피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I-5와 같다.

표 VI-5. Sobel Test 검증값

Sobel Z 통계량 $Z = 5.01***$	회귀계수(a) = 1.09	오차(a) = .12
	회귀계수(b) = .06	오차(b) = .01

표 VI-5와 같이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beta=.24$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Z값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면 $Z=5.01$ 로 나타났다. 이는 3.30보다 큰 값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을 피임 행위에 확장하여 사용한 Levinson(1986)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피임 지식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보기 위해 제주시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년과 성별 그리고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문지 조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745부가 수집되었으며, 최종 분석에는 727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여러 경로를 통해 피임 지식을 습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 관계 상황에서 피임 지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 스스로 피임을 실천할 수 있는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 피임 지식의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 사이의 매개 효과 유무를 검증하고,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이 종속 변인인 피임 태도에 개입함에 있어 상담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피임 자기 효능감과 태도의 관계에서 피임 지식의 매개 효과가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지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변인인 피임 자기 효능감이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피임 지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주연, 이인숙, 2010)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인숙, 조주연, 2008)에서는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 효능감은 정상 관계로, 피임 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또한 상관관계로만 보았을 뿐 각기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와의 일치 여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고등학생의 성교

육이나 성행위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피임에 관해서 해부학적인 측면 이외의 피임 교육을 전제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김선정, 2003). 더욱이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에 대한 관련 연구가 적어 비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독립과 종속,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더더욱 어렵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만 그 지식이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누구든지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호기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많은 피임 지식을 대중 매체를 통해 습득한다(김은영, 2006). 그런데 성관련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는 것은 그 피임 지식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확실하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 그에 적합한 지식을 얻어내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 변인인 피임 자기 효능감이 종속 변인인 피임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피임 태도가 좋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임 태도와 피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은 미혼 남녀 또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의 상관관계나 영향 정도만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미중(2001)의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임신에 대한 두려움은 대상자로 하여금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대상자의 피임 행위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조은정(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가 임신 위험을 더 많이 인지할수록 피임을 실천하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어 피임 행위를 잘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황신우, 2009; 황신우, 정재원, 2011; 황신우, 2013)에서는 자신이 피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 즉 피임 자기 효능감이 강한 대상자가 피임 실천을 더욱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

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피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교를 거절하거나 성교 시 피임을 실천할 의도가 높았다고 하였다(강희선, 2001). 이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성교 상황에서의 피임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독립 변인인 피임 자기 효능감과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이 동시에 종속 변인인 피임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임 지식이 부분 매개 효과로 나왔다. 이는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을 통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석, 2010). 즉 독립 변인인 피임 자기 효능감이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을 통해 종속 변인인 피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 매개로 나왔다는 것은 피임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향성이나 체질량 지수 같은 가외 변인 등 다른 변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대상자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중매체의 역할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 있어, 나이가 어리거나 성적 경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피임을 스스로 잘 해 낼 수 있다는 피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임 자기 효능감은 피임 지식을 더 알고자 하는 행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3개의 변인 즉 독립 변인으로서의 피임 자기 효능감과 종속 변인으로서의 피임 태도 그리고 매개 변인으로서의 피임 지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피임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피임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임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성에 관해 호기심이 많은 고등학생의 성교육에 있어 앞으로는 피임에 관한 교육이 보다 중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피임 지식을 그들의 나이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성교육에 대한 김종출(2000)의 연구를 보면, 성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에 있어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은 ‘성생활을 하는 법’을,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에서는 ‘신체 변화에 관한 것’을 선호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명지(201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성 피해자가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남학생은 성적 충동과 음란물에 대해서 성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교육만이 아니라 성상담도 연결하여(임창옥, 2005),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상담은 성 관련 문제의 시작과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심리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담 시 심리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야 피임 지식과 피임 교육을 질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임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통제하거나 억제시키는 심리적인 측면과 역동은 무엇인지, 성 상담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효과적인 상담의 접근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피임 지식이 부분 매개로 나타났으므로 매개 변인인 피임 지식이 피임 태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발생하고 다시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을 앞으로 살펴보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피임 태도를 정립하고 정확하게 피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임 교육의 목적이며 성교육의 방향이라면, 먼저 고등학생들의 피임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했던 성교육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에게 걸맞은 공급을 해야 할 것이다. 좁게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제주만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는 육지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성관련 정보를 육지의 고등학생들의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지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임 관련 연구들(조미옥, 김증임, 2004;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조용주, 정남운, 2005; 이인숙, 조주연, 2008; 방경숙, 2009; 조주연, 이인숙, 2010; 이한주, 강희선, 2011; 이금덕, 방경숙, 2011; 김연아, 오진아, 2011)에 비해, 제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성교육(장경숙, 1996; 양제순, 1998; 황옥남, 1987)과 성의식과 성태도(장광자, 1996; 고행자, 1999)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제주의 피임 교육을 강조하고 실현하는 데 작으나마 기초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피임 지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임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통제하거나 억제시키는 심리적인 측면과 역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임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임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피임 지식을 노폐야 하지만, 피임 지식 이외의 다른 변인의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피임 지식을 따로 측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금덕(2009)의 연구를 보면서 각 변인을 따로 측정해 보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제주지역 이외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임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에 관련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주에서 피임관련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 효능감, 피임 태도, 피임 지식이라는 세 변인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비교·분석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를 앞으로 횟수와 대상을 늘려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바람직한 성 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주시내 13개 고등학교 중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한 것이

므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 단위의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일반화하기엔 제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수연(2001).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부산시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삼, 이기중, 조원호, 김한분, 이종섭, 정현숙(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강희선(2001). **한국 대학생의 콘돔사용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희선(2009). **여고생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4),336-343.
- 강희선, 장순복(2004). **대학생의 콘돔사용 태도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5),751-759.
- 고행자(1999). **고교생의 성정보 매체유형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933-945.
- 김명희(1997).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중(2000).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대한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중(2001).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설명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7(2), 141-156.
- 김미중, 강희선(2003). **기혼여성의 지속적 피임행위와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및 성적자율성**. *대한간호학회지*, 33(6), 784-791.
- 김복자(2003).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접촉과 성의식 및 성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3). **서울시 일부 중학생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시청각 교육과 토론을 적용한 피임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 논문.
- 김연아, 오진아(2011).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고생의 지식 및 태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1), 9-17.
- 김은영(2006). **고등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출(2000).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 실태 조사 연구-중,고생들의 성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종민(2001).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청소년학연구**, 8(1), 117-142.
-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낙태율, 흡연률 세계1위
[“http://job.dcinside.com/board/view/?id=new&no=3724880&page=](http://job.dcinside.com/board/view/?id=new&no=3724880&page=)
 (2014년 5월 5일검색)
- 두성균(2008). **남녀 고등학생의 성의식 조사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현숙(2006). **남자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성지식, 성태도 유형 및 성 관련 경험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김태현(2005). 대학생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과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75-101.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22(4), 1147-1168.
- 송미승, 조주연, 전미순, 함미영, 위휘(2010). 남자 대학생의 피임태도에 대한 주관성 연구. **중앙간호논문집**, 14(1), 9-19.
- 신은정(2011).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자영(2009). **청소년의 분노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BS naver.com W3 SBS.co.kr (2014년 5월 5일 검색)
- 양제순(1998). **제주도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실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숙(2012).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미(2002). 10대 미혼모 실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1998).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운성, 정정옥, 가경신 공역(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 이경미(2011). **미혼모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덕(2009). **여고생의 피임지식, 성 행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덕, 방경숙(2011).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성행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62-68.
- 이인숙, 조아영(2012).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들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7), 3102-4111.
- 이인숙, 조주연(2008).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들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에 관한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1(2), 1-14(75-88).
- 이한주, 강희선(2011). 청소년들의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2007-2009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148-156.
- 인재근“성관계 경험 청소년 중 절반 이상 피임 안해”-아시아 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2510030214166”](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2510030214166)
 (2014년 5월 5일 검색)
- 임창옥(2005).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자, 내산화미, 조유향(2002). 한·일 대학생의 경구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 비교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471-481.
- 장경숙(1996). **성교육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광자(1996).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1(5), 921-931.
- 정옥희(2006). 미성년 부모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대책. **오늘의 청소년**, 32(3), 11-19.
- 제8차 (2012. 12. 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41.150-157
- 조미옥, 김증임(2004). 고등학생들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상관관계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1), 59-65.
- 조용주, 정남운(2005). 청소년 사이버 성상담에서 나타난 임신, 피임에 대한 질문분석. **학생생활상담**, 23, 35-56.
- 조은정(2006). 연극학적 상호작용 모델에 근거한 성교육이 남녀 대학생의 콘돔에 대한 태도와 콘돔사용의향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2), 223-234
- 조주연, 이인숙(2010). 일개 남자 고등학생의 성행동, 피임지식, 피임 자기효능감 및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6), 3179-3192.
- 조주연, 한승의, 송미승(2006). 여대생들의 피임행위에 대한 주관성 연구. **여성건강학회지**, 12(4), 338-347.
-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2004). 10대 여성의 성행동, 임신실태 및 피임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1), 42-50.
-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2010). 대학생의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 :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511-522.
- KOSIS 100대 지표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NUM=13(2014년 5월 5일 검색)
- 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2007). 대학생들의 성행동 및 피임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7(3), 267-275.

- 황신우(2009).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와 관련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신우(2013). 미혼남녀의 피임행위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신우, 정재원(2011).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와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77-87.
- 황옥남(1987). 제주도 일부 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고민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0, 75-94
- Ajzen(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 Fishbe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 N. J. : Prentice-Hall.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2, 117-126.
- Bandura, A.(199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Levinson, R. A.(1986). Contraceptive Self-efficacy: A Perspective on Teenage Girls' Contraceptive Behavio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3), 47-369.
- Wang, R. H., Wang, H. H., & Hsu, M. T.(2003).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egnancy-A sample of Taiwanese female adolescents. *Public Health Nursing*, 20(1), 33-41.
- Wang, R. H., Wang, H. H., Cheng, C. P., Hsu, H. Y., & Lin, S. Y.(2007). Testing a model of contraception use behavior among sexually

active female adolescents in Taiwa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 628-640.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Psychol Methods*. 7(1), 83-104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Birth Control Knowledge in Relation
to Effects of High Schoolers' Birth Control Self-efficacy
on Birth Control Attitude

Koh, Kyung-sim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eong

The open sexual cultur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uper-speed Internet are leading adolescents of these times to yet-to-be verified and irrational information, and that is making it even harder for the adolescents to have any right idea about sex. Not only that, how the adults regard the adolescents' sexual culture only as some risk factor to the society hardly encourages the adolescents to talk about any sexual problems, and that is one of the reasons for why the sexual issues of the adolescents are getting intensified every day.

Despite the decreasing birth rate in South Korea which is a serious national problem, the abortion rate has been on a constant rise, and every year, more female students experience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s

* This thesis is a master's dissertation on pedagogy submitted to the board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14.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s well.

In the light of present circumstances, the study has decided that it should approach the adolescents' sexual culture from an inclusive aspect, regardless of gender. In addition, at present,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adolescents' sexual problems, most of those in charge of such education focus only on chastity education, which is a problem in this kind of sex education, and that being the case,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birth control education which has been neglected by schools and homes.

The study investigated if birth control knowledge has mediating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effects of the birth control self-efficacy on the birth control attitude.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from November 18, 2013 to December 31, 2013, targeting students from ten out of 13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A total of 74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gathered and except for 18 unfaithfully-responded copies, 727 copies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21.0.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ing tool,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calculated,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s, the study worked on the mediating effects-verification process.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the findings from all investigations and analyses, birth control self-efficacy doe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both on the birth control attitudes and the birth control knowledge. In addition birth control attitudes appeare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o birth control knowledge.

Regarding how birth control self-efficacy affect birth control attitudes, birth control knowledge was observed to be a partial medium. From these findings, the study confirmed that when it comes to improving the birth control attitudes, not only birth control knowledge but also other variables, such as extraneous variables like social desirability, BMI and

others, have an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birth control attitudes. For instance, the study understands that different factors, such as how the parents see or deal with the sexual culture, if this adolescent is currently in a relationship, the roles of the mass media and others, will have an influence.

Sex is one of the basic desires that humans have and in that respect, any sexual issues should be handled psychologically over the whole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s long as counselors approach the issue from the point of view of psychology, they will be able to work on the birth control knowledge and the birth control education both qualitatively and efficiently.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any following research should discuss all those factors, not only which would determine a success of counseling with students who need to talk about their sexual problems but also which influence the general process of how this mediating variable, the birth control knowledge, intervenes in the birth control attitude.

In the light of what has been learned so far, the study argues that if birth control education and sex education ultimately aim to help the students in high school have positive birth control attitudes and practice protection, the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mainly focusing on psychological aspects.

설문지

최근 성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임 자기 효능감과 피임 태도 그리고 피임 지식에 대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응답하여 주시면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 설문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약 15-20분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알려 주신 정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를 노출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할 것이며, 원하지 않으실 경우 참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바쁘신데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최 보 영
연구자 : 고 경 심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는 경우 꼭 아래 칸에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쓰지 마십시오.)

사인 _____

※ 다음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로 표시해 주세요.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_____ ② 여_____
- 2) 현재 학년은? ① 1학년_____ ② 2학년_____ ③ 3학년_____
- 3) 계열은? ① 일반고_____ ② 특성화고_____ ③ 기타_____
- 4) 학교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받았다_____ ② 받은 적이 있다_____ ③ 받은 적이 없다_____
- 5) 이제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_____ ② 대체로 만족 _____ ③ 보통_____
 ④ 불만족 _____ ⑤ 매우 불만족_____
- 6) 귀하가 알고 있는 피임방법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세요.
 ① 콘돔 _____ ② 질외사정법 _____ ③ 월경주기법 _____
 ④ 점액관찰법_____ ⑤ 기초체온법_____ ⑥ 먹는 피임약 _____
 ⑦ 자궁내 장치 _____ ⑧ 페미돔(여성용 콘돔) ⑨ 난관절제술 _____
 ⑩ 정관절제술 _____ ⑪ 응급피임약 _____ ⑫ 없음_____
- 7) 성에 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1개만 선택)
 ① 대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_____ ② 인터넷_____ ③ 친구나 선배_____
 ④ 잡지나 책_____ ⑤ 부모님_____ ⑥ 보건선생님_____
 ⑦ 기타_____ ⑧ 없음 _____
- 8)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1개만 선택)
 ① 남녀생식기 구조_____ ② 성교행위_____ ③ 성충동_____ ④ 자위행위_____
 ⑤ 임신 및 출산_____ ⑥ 성병_____ ⑦ 피임_____ ⑧ 유산_____
 ⑨ 기타_____ ⑩ 없음_____
- 9)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_____ ② 아니오_____

가. 다음은 피임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예(O)	아니오(X)	모른다
1. 정관수술을 받으면 바로 피임의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2. 콘돔을 사용할 때는 콘돔 끝을 비틀어 공기를 뺀 후 사용한다.	①	②	③
3. 먹는 피임약의 복용시간보다 12시간 이상 지났다면, 생각난 즉시 바로 먹도록 하고, 피임효율이 떨어지므로 다른 피임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4. 자궁 내 장치는 시술 후 추후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한 방법이다.	①	②	③
5.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에 사용하는 성관계후 응급 피임법(사후 피임약)은 착상이 이루어진 후 태아의 생존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①	②	③
6. 배란이 가능한 시기는 다음 월경시작 예정일로부터 약 12~16일 전이다.	①	②	③
7. 질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맑아지며 점도가 증가할 때는 배란이다.	①	②	③
8. 자궁 내 장치(루우프)는 피임을 할 수 있으나 성병이나 에이즈는 예방하지 못한다.	①	②	③
9.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성관계 후에 즉시 씻물을 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	①	②	③
10. 체외사정법으로 피임할 때 성관계 시 질내에서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임신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11. 살정제 좌약은 성관계 직후 질에 삽입한다.	①	②	③
12. 출산 후에 월경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임신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13. 월경을 하는 기간은 임신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나. 다음은 피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유산은 여성건강에 해롭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 전에 성교를 하게 되면, 피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피임은 남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보다는 내가 피임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해당란에 ✓로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자신없다	대체로 자신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1. 이성 친구에게 성 관련 경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상대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편히 얘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콘돔을 사용하자고 이성 친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약국, 자판기, 편의점 등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를 구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성친구가 피임사용을 꺼리면 성교를 거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피임법이 준비될 때까지 성교를 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적으로 흥분해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피임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피임법을 매번(성교시 마다)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임법 사용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라. 다음은 성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한 두번 있다	여러 번 있다	매우 많다
1. 이성과 손을 잡아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성과 포옹을 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성과 키스를 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이성과 가벼운 애무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상체를 중심으로 한 애무)	①	②	③	④
5. 이성과 진한 애무를 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이성과 성교를 가진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마. 성관계 경험이 있다면 다음 문항에 답하여 주십시오.

- 1)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나이는 언제였습니까? _____ 세
- 2) 처음 성교 시 피임방법은?
 - ① 사용하지 않음_____ ② 콘돔_____ ③ 질외사정_____
 - ④ 월경주기법_____ ⑤ 경구(먹는)피임약_____ ⑥ 기타_____
- 3) 성교 전에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안 마심_____ ② 간혹 마심_____ ③ 대부분 마심_____
 - ④ 항상 마심_____
- 4) 현재(최근 6개월 이내) 성관계 대상자는?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 5) 현재(최근 6개월 이내) 성관계 대상자가 있다면, 성교 시 피임은?
 - ① 항상 한다_____ ② 가끔 한다_____ ③ 전혀 하지 않는다_____
- 6)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 ① 월경주기법_____ ② 콘돔_____ ③ 질외사정_____
 - ④ 경구(먹는) 피임약_____ ⑤ 기타_____
- 7) 본인이나 여자 친구가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 8) 임신한 경우 어떻게 하였습니까?
 - ① 인공유산_____ ② 출산 후 입양_____ ③ 본인이 기르고 있음_____
 - ④ 기타_____

-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부록 II.

표 II-1. 성 관련 실태

	성별				학년				계열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일반고		특성화고				
	n	%	n	%	n	%	n	%	n	%	n	%	n	%	
교육경험	자주 받았다	23	5.8	6	1.8	22	6.2	7	1.9	9	2.8	20	5.0	29	4.0
	받은 적이 있다	250	63.3	214	65.6	211	59.8	253	68.8	225	69.7	239	60.1	464	64.4
	받은 적이 없다	122	30.9	106	32.5	120	34.0	108	29.3	89	27.6	139	34.9	228	31.6
	전체	395	100.0	326	100.0	353	100.0	368	100.0	323	100.0	398	100.0	721	100.0
만족도	매우 만족	11	2.8	7	2.2	10	2.8	8	2.2	4	1.2	14	3.5	18	2.5
	대체로 만족	57	14.4	67	20.7	58	16.4	66	18.0	55	17.1	69	17.4	124	17.2
	보통	260	65.7	205	63.5	240	68.0	225	61.5	202	62.7	263	66.2	465	64.7
	불만족	33	8.3	26	8.0	23	6.5	36	9.8	38	11.8	21	5.3	59	8.2
	매우 불만족	35	8.8	18	5.6	22	6.2	31	8.5	23	7.1	30	7.6	53	7.4
	전체	396	100.0	323	100.0	353	100.0	366	100.0	322	100.0	397	100.0	719	100.0
알고 있는 피임방법	콘돔	379	95.7	290	89.5	325	92.1	344	93.7	312	96	357	90.4	669	92.9
	질외사정법	255	64.4	159	49.1	207	58.6	207	56.4	231	71.1	183	46.3	414	57.5
	월경주기법	221	55.8	219	67.6	229	64.9	211	57.5	260	80	180	45.6	440	61.1
	점액관찰법	20	5.1	20	6.2	31	8.8	9	2.5	34	10.5	6	1.5	40	5.6
	기초체온법	25	6.3	25	7.7	40	11.3	10	2.7	42	12.9	8	2	50	6.9
	먹는 피임약	321	81.1	294	90.7	298	84.4	317	86.4	300	92.3	315	79.7	615	85.4
	자궁내 장치	107	27	106	32.7	119	33.7	94	25.6	138	42.5	75	19	213	29.6
	페미돔(여성용 콘돔)	166	41.9	109	33.6	150	42.5	125	34.1	151	46.5	124	31.4	275	38.2
	난관절제술	85	21.5	68	21	89	25.2	64	17.4	116	35.7	37	9.4	153	21.3
	정관절제술	126	31.8	84	25.9	121	34.3	89	24.3	160	49.2	50	12.7	210	29.2
	응급피임약	213	53.8	158	48.8	208	58.9	163	44.4	204	62.8	167	42.3	371	51.5
	모름	13	3.3	16	4.9	17	4.8	12	3.3	7	2.2	22	5.6	29	4.0
		전체	396	100.0	324	100.0	353	100.0	367	100.0	325	100.0	395	100.0	720

	성별		학년				계열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일반고				특성화고		
	n	%	n	%	n	%	n	%	n	%	n	%			
성지식 출처	대중매체(TV,라디오)	24	6.1	29	9.0	29	8.3	24	6.5	28	8.7	25	6.3	53	7.4
	인터넷	221	56.1	89	27.5	145	41.3	165	45.0	139	43.3	171	43.1	310	43.2
	친구나 선배	67	17.0	35	10.8	51	14.5	51	13.9	51	15.9	51	12.8	102	14.2
	잡지나 책	7	1.8	6	1.9	10	2.8	3	0.8	9	2.8	4	1.0	13	1.8
	부모님	6	1.5	5	1.5	4	1.1	7	1.9	6	1.9	5	1.3	11	1.5
	보건선생님	60	15.2	130	40.1	84	23.9	106	28.9	74	23.1	116	29.2	190	26.5
	기타	-	-	10	3.1	8	2.3	2	0.5	5	1.6	5	1.3	10	1.4
	없음	9	2.3	20	6.2	20	5.7	9	2.5	9	2.8	20	5.0	29	4.0
전체	394	100.0	324	100.0	351	100.0	367	100.0	321	100.0	397	100.0	718	100.0	
희망 교육내용	남녀 생식기 구조	10	3.5	3	1.3	4	1.7	9	3.1	2	0.8	11	4.0	13	2.5
	성교행위	113	39.1	28	12.2	70	30.2	71	24.7	68	27.5	73	26.8	141	27.2
	성충동	30	10.4	6	2.6	21	9.1	15	5.2	17	6.9	19	7.0	36	6.9
	자위행위	16	5.5	3	1.3	10	4.3	9	3.1	11	4.5	8	2.9	19	3.7
	임신 및 출산	45	15.6	108	47.0	71	30.6	82	28.6	70	28.3	83	30.5	153	29.5
	성병	42	14.5	28	12.2	30	12.9	40	13.9	39	15.8	31	11.4	70	13.5
	피임	22	7.6	34	14.8	14	6.0	42	14.6	24	9.7	32	11.8	56	10.8
	유산	5	1.7	17	7.4	7	3.0	15	5.2	10	4.0	12	4.4	22	4.2
기타	6	2.1	3	1.3	5	2.2	4	1.4	6	2.4	3	1.1	9	1.7	
전체	289	100.0	230	100.0	232	100.0	287	100.0	247	100.0	272	100.0	519	100.0	
현재 이성교제	교제하고 있다	57	14.5	46	14.2	52	14.7	51	14.0	28	8.6	75	19.0	103	14.3
	교제하고 있지 않다	337	85.5	279	85.8	302	85.3	314	86.0	296	91.4	320	81.0	616	85.7
	전체	394	100.0	325	100.0	354	100.0	365	100.0	324	100.0	395	100.0	719	100.0

부록 III.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1) 피임 자기 효능감 실태

표 III-1. 성별, 학년, 학교 계열별 피임 자기 효능감 평균 비교

(N=727)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p)
성별					
남	400	2.95	.72	.04	-3.17**
여	327	3.12	.74	.04	
학년					
1학년	357	3.06	.73	.04	1.23
2학년	370	2.99	.74	.04	
학교 계열					
일반고	326	3.09	.69	.04	2.22**
특성화고	401	2.97	.77	.04	
계	727	3.03	.74	.03	

** $p < .01$

2) 피임 태도 실태

표 III-2. 성별, 학년, 학교 계열별 피임 태도 평균 비교

(N=727)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p)
성별					
남	400	3.66	.61	.03	-5.68***
여	327	3.90	.50	.03	
학년					
1학년	357	3.73	.62	.03	-1.97*
2학년	370	3.81	.52	.03	
학교 계열					
일반고	326	3.86	.52	.03	3.96***
특성화고	401	3.69	.61	.03	
계	727	3.77	.58	.02	

*** $p < .001$, * $p < .05$

3) 피임 지식 실태

표 III-3. 성별, 학년, 학교 계열별 피임 지식 평균 비교

(
(N=727)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p)
성별					
남	400	2.22	2.53	.13	-.75
여	327	2.36	2.52	.14	
학년					
1학년	357	2.35	2.68	.14	.70
2학년	370	2.22	2.37	.12	
학교 계열					
일반고	326	2.92	2.75	.15	6.35***
특성화고	401	1.76	2.20	.11	
계	727	2.28	2.53	.09	

*** $p < .001$